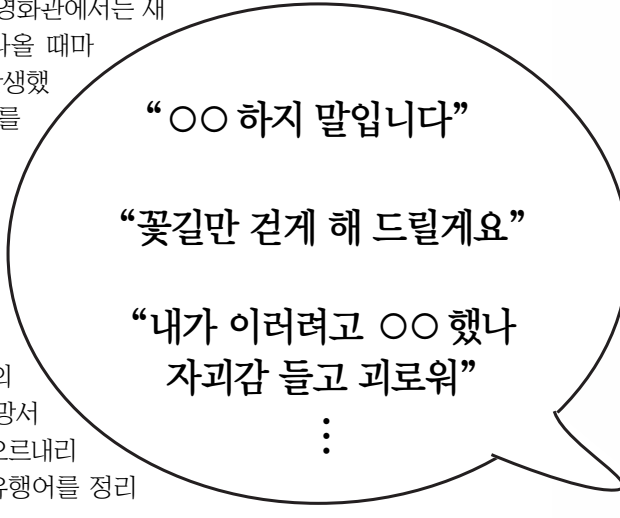


“히트다 히트” “뺨이 중헌디”

올 한해 뜨겁게 달군 유행어

시사·영화·안방극장·예능계 ‘뺨뺨’
히트작 다수 ... SNS 통해 빠른 전파

올해 대중문화계에서도 화려한 말의 성전이 치러졌다. 안방극장과 영화관에서는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명대사가 탄생했다. 우리 사회를 뒤흔든 ‘비선실세’ 파문은 예기치 않게 유행어 보따리를 한 아름 안겨줬다. 올해 사람들의 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르내리며 사랑받은 유행어를 정리했다.



◇ ‘비선 실세’ 파문에 유행어 ‘뺨뺨’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는 시사 풍자에 목말랐던 예능가에 단비를 물고 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연설과 대국민 담화 내용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순하게 재생산되면서 풍자의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가 이리려고 대통령을 했다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다”고 토로한 다음 날,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 우주특집에는 ‘내가 이리려고 지구에 왔나’는 자막이 등장했다.

이밖에 ‘런닝맨’, ‘꽃놀이패’,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다양한 예능이 ‘운우주의 기운을 모아’ 패러디에 동참했다.

680만명이 본 영화 ‘곡성’에서 13살 소녀 흥진(김환희 분)이 아버지에게 내뱉은 한 마디 ‘뺨이 중헌디’도 올해를 장식한 유행어였다. 이 대사는 영화 흥행을 견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는

물음을 던졌다. 영화의 또 다른 대사인 ‘미끼를 확 물어 본 것이여’와 카피 ‘절대 현혹되지 마라’도 사람들 입에 심심찮게 오르내렸다.

◇ ‘꽃길만 걷자’부터 ‘히트다 히트’ = 올해 초 때 지어 나타난 소녀들의 위력은 대단했다. 엠넷 ‘프로듀스 101’을 통해 탄생한 걸그룹 아이오아이(I.O.I) 이야기.

“엄마, 오빠, 우리 셋이서 바닥부터 힘들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꽃길만 걷게 해 드릴게요”라며 눈물을 쏟던 스무 살 김세정의 모습은 사람들 마음을 울렸다. 원래 팬들이 아이돌 가수들을 응원할 때 쓰던 ‘꽃길만 걷자’는 이후 세대와 연령을 불문하고 사랑받는 유행어가 됐다.

‘무한도전’이 작정하고 홍보한 ‘히트다 히트’도 이목을 끄는 데 성공했다. ‘무한도전’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히트다 히트’ 원조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 군대식 말투마저 반했지 말입니다 = 올 상반기 방송가를 휩쓴 KBS 2 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도 유행어 제조기에서 빠질 수 없다.

가상의 국가에 파병된 특전사 대원들의 활약을 그린 이 드라마에서 잘생기고 능글능글한 절도 있는 군인 유시진은 여성 시청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훔쳤다.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한 송중기가 말끝마다 붙인 ‘~하지 말입니다’란 군대 말투도 덩달아 유행어가 됐다. ‘다·나·까’로 끝나는 병영 언어를 바로잡고자 개선 지침을 일선 부대에 내려보냈던 국방부로서는 때마침

‘~하지 말입니다’ 열풍에 난처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 밖에도 “조준목표가 너무 예뵈니다”, “그럼, 살려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등의 유행어를 만들어 냈다. ‘태양의 후예’만큼은 아니지만, 박보검의 매력에 빛난 KBS 2TV 사극 ‘구르미 그린 달빛’도 적잖은 명대사를 내놓았다. 박보검이 분한 왕세자 이영을 가리키는 ‘세자 저하’라는 단어는 한동안 여성을 대화에서 빠지지 않았다. “불하한다, 내 사랑이다”, “내가 해보려다, 그 못된 사랑” 등의 대사로 인구에 회자했다. /연합뉴스

‘라스트 크리스마스’ 조지 마이클 성탄절에 잠들다

12월 25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에 영국에서 세상을 떠난 조지 마이클(53·사진)은 1980년대 마이클 잭슨, 프린스, 마돈나와 함께 최정상급 인기를 누리던 영국의 싱어송라이터다.

당시 “백의 마이클(조지 마이클)과 ‘흑의 마이클’(마이클 잭슨)이 경쟁을 하는 시대”라는 표현이 있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스계 영국인으로 1963년 6월 25일 런던에서 태어난 그의 본명은 게오르기오스 키리아코스 파나요투이다.

1981년 앤드루 리즐리와 듀오 그룹 ‘웜’(Wham)을 결성한 그는 1982년 데뷔 앨범 ‘판타스틱’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배드 보이’(Bad Boy), ‘러브 머신’(Love Machine) 등 수록곡이 히트하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의 준수한 용모도 인기의 한몫했다.

‘웨이크 미 업 비포 유 고 고’(Wake Me Up Before You Go Go) 등이 잇따라 히트하며 조지 마이클은 당대 최고의 아이돌 스타로 급부상한다. 조지 마이클의 ‘웜’ 활동은 1990년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댄스 아



이들 가수 붐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84년에는 ‘라스트 크리스마스’(Last Christmas)를 발표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웜’이 해체된 이후 조지 마이클은 솔로 활동에 나선다. 1987년 첫 솔로 앨범 ‘페이스’(Faith)를 발표해 25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며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상’ 등을 차지했다.

청아하면서도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탁월한 작곡 능력을 소유한 조지 마이클은 전 세계적으로 통산 약 4300만 장의 음반을 판매했으며,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12곡, 10곡이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다. 비공식적으로 그의 앨범 판매량은 1억 장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신동엽, SBS서 첫 연예대상

“사회 말할때 보다 더 좋아”

예능인 신동엽(45)이 데뷔 25년 만에 SBS에서 첫 연예대상을 받았다.

신동엽은 25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2016 SAF SBS 연예대상’에서 함께 후보에 오른 유재석, 김병만, 김구라, 김국진을 제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직후 신동엽은 “앞서 많은 수상자가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저 역시 그렇다”면서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분들이 ‘미운 우리 새끼’ 어머니님들인데 이 트로피와 영광을 대신 전해 드리고”고 밝혔다. 그는 “늘 연말 시상식에서 사회자로

서 친구와 동생, 형이 대상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대상 수상도 좋지만 사회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대상을 받으니 저 자리(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강조했다.

최우수상은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흥운 화(코미디), ‘미운 우리 새끼’ ‘판타스틱 듀오’의 김건모(소·토코쇼), ‘런닝맨’의 이광수(버라이어티)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김진근·김정환(코미디), ‘케이팝스타’ ‘판타스틱 듀오’의 전현무·차기아·백년송(노래)의 성대현(소·토코쇼), ‘미운 우리 새끼’ ‘꽃놀이패’의 서정훈(버라이어티)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애나 불날>	30 KBC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아침 쏘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KBS 스페셜 55 감성애니 하루(재)	00 월화드라마<화랑> (재)	00 월화드라마 <불야성>(재)	00 TV블로그 꿈지락 05 특선다큐 <그레도 행복한 학교 가는길> 55 닥터 365(재)
12 00 KBS 뉴스12	00 생생정보스페셜 40 살림하는남자들 (재)	00 MBC 청오뉴스 20 TV속의TV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코쇼 가요1번지 55 송터 내가 사랑한 문화유산 (재)		20 문화사색 (재)	55 닥터 365
2 00 TV쇼 진품명품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폭력 30 꾸러기 식교실	00 영재발굴단
3 00 사람과 사람들 (재) 50 별별가족 55 튼튼생활제2	00 자동차부착식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응가 쇼나타 2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30 송년특집 꾸러기 탐구생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빠가 불러주는 이야기 특목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향건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특집다큐 낚는 땅, 새로운 희망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컬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역사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기획 창 55 송터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찾기	00 월화드라마 <화랑>	00 월화드라마 <불야성>	00 월화드라마 <남만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살림하는남자들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성탄특집 언더우드의 유언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지중해 및기행 2부 지중해 슬로우 푸드)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반전조 오징어조림과 오이교주 무침)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포피와 친구들 15:05 피터레빗 15:20 아용명명 귀여워(재) 15:35 오솔 상자2 15:45 코코콩 3 16:15 방귀대항 썰렁이(재) 16:30 부릉부릉 부르미즈(재) 16:45 덩동명 유치원1~3(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국한직업 20:40 다구 오늘 (칼리만탄 숲의 오랑우탄) 20:50 세계대기행 (미지의 땅, 남호주 탐험 - 북은 땅을 향하여) 21:30 한국기행 (우리는 겨울바다로 간다 - 꿈꾸는 바다)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큐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7일(음 11월 29일 癸未)
子 48년생 의의의 재물이 상당히 생길 수도 있다. 60년생 인식의 관점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수 있다. 72년생 조금만 더 진행되고 있으면 일하던 단계에 이르게 된다. 84년생 실익이 없다면 급격히 빨리 선회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33, 60	午 42년생 반복적인 점검과 관심만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54년생 지극 손을 쓰지 않으면 수습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66년생 상식에 근거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78년생 관심을 가져 왔던 바에 효과가 드러나리라. 행운의 숫자 : 56, 70
丑 49년생 파격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시점이다. 61년생 격식과 소득이 없으리라. 73년생 대인 관계와 처세에 공을 들여라. 85년생 지난날의 은원은 말할 것도 없으니, 제반사를 차차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달라. 행운의 숫자 : 03, 15	未 43년생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형국이다. 55년생 판단이 섰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67년생 역으로 꾸미려 하지 말고 본래대로 놔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79년생 무의식중에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라. 행운의 숫자 : 61, 01
寅 50년생 일신에 그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니 방향을 빨리 선회해야만 타계할 수 있다. 62년생 당해 사항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74년생 주변의 여건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86년생 정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라. 행운의 숫자 : 48, 98	申 44년생 우연한 기회를 제공받고 매우 기뻐할 수다. 56년생 활용여부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달라진다. 68년생 머지않아서 한계점을 드러내게 된다. 80년생 명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점진적으로 임하라. 행운의 숫자 : 51, 65
卯 51년생 길경이 넘칠 수니 기분이 좋어서 환호성을 지르겠다. 63년생 실제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맞다. 75년생 의지가 확실하다면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다. 87년생 보완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5, 40	酉 45년생 상태가 계속된다면 총통하게 되어 있다. 57년생 대체로 순조롭게 전개될 것이니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69년생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81년생 과거의 관행과 전형을 따랐을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 행운의 숫자 : 37, 17
辰 40년생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자. 52년생 보류되어 있던 것을 재개하는 마당이나, 64년생 눈 똑똑히 뜨고도 속을 수 있다. 76년생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타협할 수도 있다. 88년생 편견에서 사로잡힌다면 나쁜 상황이 된다. 행운의 숫자 : 71, 08	戌 46년생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58년생 열려달란 화근을 만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70년생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82년생 투명하게 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니라. 행운의 숫자 : 04, 11
巳 41년생 횡단한 일에 직면할 수도 있다. 53년생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 65년생 인식하였다면 즉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 77년생 여명이 밀려가는 어두움을 보게 되리라. 89년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하라. 행운의 숫자 : 46, 76	亥 47년생 대상의 선정에 따라서 천차만별할 것이니 각별히 신경 써라. 59년생 가려서 듣지 않으면 손재수를 야기하게 된다. 71년생 상대의 태도는 자신의 언행에 대한 거울임을 알라. 83년생 자연히 해결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9, 80